

# 베트남 제빵 및 제과산업

## ○ 일반현황

- 베트남 제빵·제과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11억달러로 연12% 성장
- 세계 평균성장률은 1.5%, 아태지역은 3%
- 2013년에는 전년비 9.34% 증가한 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베이커리 및 제과산업 규모

(단위: 백만달러, 천톤)

구분	2012	2013 (전망)
매출액	1,091.80	1,193.75
판매량	175.19	183.04

<출처: BMI, 2013>

- 베트남 제빵·제과산업은 계절 특수를 누리는 특징을 보임
- 연중 3대 매출 성수기는 음력설명절, 추석, 크리스마스임
- 해당 시기별로 인기상품 생산량을 늘리고, 특판 활동을 전개
- \* 설명절-선물용, 추석-월병(moon cake), 크리스마스-케익류 등

## ○ 주요 기업현황

- 시장점유율은 수입품 20%, 대기업 제품 42%, 기타 영세기업 38% 차지
- Kinh Do는 2012년 1억7천만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1위 유지, 2013년 2억달러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Kinh Do는 일본 제과업체 Glico와의 합작투자로 신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천7백억달러 규모의 Glico제품 매출을 기대
- 2위 업체인 Bibica는 2012년 4천4백만달러 매출 달성, 2013년 6천3백만달러 목표
- \* 한국 롯데에서 Bibica 지분 38.6% 소유

## ○ 제과류 주요 수입 현황

- 2013년 1~7월 기준, 수입액은 1억8천만달러로 전년비 135% 증가

- 최대 수입국인 對싱가포르로 수입은 동기간 7천6백만 달러를 수입 전년 동기비 20배 이상 급증
- 對한국(9위수입국) 수입은 4백만 달러로 전년 비 103%증가
- 제과 매장 현황
  - 갓 구운 신선 제빵 류를 판매하는 제과점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시장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하는 양상을 보임
  - 베트남 로컬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뚜레쥬르, 파리바게뜨(한국), Breadtalk(싱가포르) 등 외국계 브랜드의 진출이 눈에 띈다

제과점 주요 브랜드별 매장수 (2013. 8)

로컬 브랜드	매장수	외국 브랜드	매장수
Givral	33	뚜레쥬르	34
Kinh Do Bakery	27	파리 바게뜨	13
Brodard	15	Breadtalk	7
Duc Phat	14		
ABC	13		
Paris Gateux	12		
Nguyen Son Bakery	8		
Hy Lam Mon	7		

- 시장 전망
  - 베트남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1.8kg으로 세계 평균(2.8kg)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성장잠재력은 충분한 편임
  - 또한, 전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세이하 젊은 인구는 서구식 소비스타일에 익숙하여 제빵·제과의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
  - 시장성장성을 겨냥하여 인도네시아 유명 제과업체인 Nabati가 베트남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진출로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BMI, VINANET, Business Forum, Bao Dau tu - Investment News, Kinh Do and Bibica Financial Report>